이제는, 문화의 窓으로 건설산업을 재조명할 때

- 국민경제적기여도만큼미시적 이미지도중요, 컬처노믹스의흐름 읽어야 -

‘컬처노믹스의 시대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감성과문화마케팅의비중을확대하면서 문화경제(culturenomics)의파급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대중의 수요에 부합하여 반도체 집적 기술은 해마다 용량이 2배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문화콘텐츠산업을육성하고국가의문화적이미지를개선하려는전략적선택에투자를확대하고있다. 산업사회가하드웨어중심에서소프트웨어 중심으로패러다임이옮겨가면서사회경제적활동의문화적가치에대한인식도바뀌고있다.

공동주택이보편화되면서주거문화는편의성, 실용성, 경제성을중심으로이미도시환경을 바꾸었다. 주택구조와 지리적 여건이달라지면서국토관리의방향도재조정되고있다. 주거문화는국민경제의운영방침과가족관계의사회적풍속도를변화시키기도한다.

건설업은 문화의 황무지인가

건설산업에서도문화적가치를찾을수있는가? 성수대교와삼풍백화점의 붕괴, 중층하도급 구조를이용한건설비자금조성, 담합에의한입찰가격조정, 턴키사업심의위원에 대한 불법 로비 등 부정 · 부패와부실을관찰하는입장에서는품격있는건설문화를 발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집트 피라미드나캄보디아앙코르와트신전과같은신비한 고대 건축물뿐만 아니라 파리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텔등독창적이고예술적감각으로창조된 구조물들을 바라보는입장에서는 인류의 문화유산과 현대 건축물에서시공간을 넘나들며생동하는문화적가치를절감하게된다.

건설인스스로가산업을어떻게생각하고행동하며, 무엇을 창조해낼것인가를고민하면서, 마음을열고감성을울리는 진지한문화적 탐색을할 때건설산업재도약의 길이 열릴 것이다. 사진은‘ 건설산업상생협력헌장선포식 장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건설문화의 산물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치있고아름답다고여기며간직하고싶은건설문화를선뜻제시하기에는주저된다. 건설산업은‘ 노가다 ’문화라는헤어날수없는주술에홀려있는듯하다.

건설문화는 눈높이 척도

건설산업은현재심각한동맥경화증에시달리고있다. 사업물량도자금도흐름이막혔다. 인적자원의유입도어렵다. 청년실업률이높아도건설업에서직업매력도를찾으려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업계는 생산 체계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힘들게경쟁력을강화하기보다는물량확보를 통한 단기적 돌파구 마련에 급급한 상황이다. 10년전과변함이없다.

관점을 달리해 보면, 오늘날 건설산업 침체의본질은문화적위기에서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구성원들의 사고방식(thinking), 행동 양식(behavior), 그리고 산물(products)이다.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치로운 것과 그 우선순위가 달리 결정될수있다. 또한, 가치관을실현시키려는구성원들의다양한행동들은문화적소산을가시화시키는매개체가된다.

건설문화의 개념은 이러한 3차원 스펙트럼을통해입체적으로재구성될수있다. 즉, 건설문화는산업활동의토대가되는정신적

건설문화의 개념

관점	중심개념	예시
포괄성	건설문화는건설산업의다양한활동, 조직, 제도, 구조물등을통해포괄적으로형성	· 문명창조적활동: 르네상스양식건축물 · 다양한활동주체들의사고/행동방식표출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등
실용성	건설문화는인간이자연및사회환경에대응하여 생존에필요한실제적인능력을반영	· 댐, 도로, 교량등SOC 건설 · 도시개발, 문화재복원
집단성	건설문화는건설활동에의해습득되고함께나누는것이며사회적집단속에서형성	· 도제중심생산방식 · 종사자간친밀문화
규범성	건설문화는구조물을통해삶의가치, 이상, 규범을구체화	· 고대신전, 사원, 성곽 · 생태공원, 도심산책로
일상적 가치성	건설문화는인간의복합적인생각, 관행, 이성적 판단, 삶의비전등을일상생활에서구현	· 생활편의의주거문화 · 친환경설계및공법
창조성	건설문화는주어진자연및사회환경을의도에 따라재구성또는창조하는활동을반영	· 해저터널, 지하도시 · 간척지, 초고층빌딩
구조성	건설문화는건설산업을매개로하여사회적으로 정형화되고상호연관된사고방식이나행위	· 공급자중심의생산체계 · 3D 산업문화
상징성	건설산업의구조물은인간의의식과경험을상징적으로함축하여구성하는종합적활동의산물	· 자연지배의인간승리 · 첨단기술의종합적시현
역사성	건설문화는건설산업의사회적전통이며세대를 관통하여전승되는체계	· 어우러지는상생문화 · 장인정신

체계(사고방식)와구체적실천방식(행동양식)에의해특징지워지며그결과물로창조된 건설 생산물의 총체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건설문화란 건설산업의 발전(변천) 과정에서 습득하고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건설인의 가치관에 의해 생산된 건설 생산물을 통해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온 생활양식이다. 이러한건설문화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를테면건설문화는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 창조적 활동의근간을이루어왔고, 종교의식이나삶의구심체를형성하면서집단성의문화이기도 하며, 주어진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재구성하거나재창조하는문화이기도하다.

‘부도덕한 효자’이미지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변론에도 불구하고일반대중은건설산업에대해강한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2004년 한국건설문화원이일반국민1,000명을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가 건설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의 79%는 건설기업이 부정 ·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고 여긴다. 건설산업은 노가다 문화로 대변될 수 있다고 여긴 응답자도 60%나된다.

한 언론 보도를 분석해보면, 건설산업에 대해부정적인이미지를형성할수있는기사가 86%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자산업의 경우 관련 기사들 가운데 78%가 긍정적인 이미지를형성하는점과는대조적이다.

건설산업의 구조는 고용 창출 효과와 산업 연관 효과가 크므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바가지대하다는 점은일반국민들도인식하고 있다. 산업의 거시적 기여도는크지만 미시적 매력도는 저조하다. 건설산업은 ‘부도덕한 효자’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효자역할에도불구하고비윤리적언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거칠고 무례한 자식으로 질타당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미지가 반드시실체와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어떠한 관점과목적으로부정적인이미지를인식하고수용하느냐가중요하다.

문화의 눈으로 건설산업을 돌아보면

천덕꾸러기로 인식되고 있는 산업이 환골탈태하기위한원동력을스스로확보하기란간단하지않다. 그렇지만건설경기침체隊 수주의존적인사업구조隊 수익구조의 불안정성隊 직업매력도저하隊 우수인력 유입저해隊 산업경쟁력약화隊 산업기반 약화隊 내부 혁신 동력 약화隊 경기 침체 지속등악순환의고리를차단해야하는일차적인책임은건설업계의몫이다.

문화의 눈으로 건설산업을 돌아보면 사람이 자연과 만나고 사회와 문명을 형성하는 건설 본연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 본질에 근접하면 위기 관리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 물론 건설산업은 낙후된 사양 산업으로, 직업 선호도가 낮고, 고상하지 못한, 기피대상산업이라는인식이확산되어 있다. 건설 활동은 비체계적, 비합리적, 비윤리적, 환경 파괴적 행위의 선봉에 서 있다는 편향된 시각도 팽배해 있다. 도무지 미로를탈출할만한실마리를찾을수가없다. 기술 경쟁력의 경시, 획일적인 입찰계약제도, 무분별한 시장 진입 구조, 비체계적인전문가육성프로그램등이낙후된건설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종사자들이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무엇을 창조해낼 것인가에대해고민하면서, 마음을열고감성을 울리는 문화적 탐색을 소홀히 해 온 것이야말로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억누르고 있는본질적인족쇄가아닐까생각한다. 이제는 건설산업에서도문화의창(窓)으로경제를바라볼시기가무르익었다.

김태황
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
ecothk@mju.ac.kr